

광주 노사민정 “임단협 유예 조항 삭제·수정” 현대차 “불가”... ‘광주형 일자리’ 막판 급제동



5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오늘 오후 예정 투자협약식 연기 우려 ... 대승적 합의 가능성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의 반발로 인해 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5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가결 조건으로 내건 신설법인인 차량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임금협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해 현대차가 불가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열린 예정이었던 투자협약식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현대차가 ‘임금협상 유예’ 이외에 다른 내용은 대체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막판 합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5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전날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한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 최종 협약안을 논의했다. 당초 오전 10시 협의회에는 불참했던 윤종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날 협의회 안건은 노사상생발전협

서, 적정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광주시 공동복지프로그램 등이었으며 협의회는 이들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지역노동계가 문제를 삼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이 발목을 잡았다. 협정서 제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신설법인의 임금 협상을 사실상 35만대가 넘는 시점, 연 7만대일 경우 5년 그리고 10만대일 경우 3년 6개월간 유예한다는 의미여서 지역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 안은 광주시와 현대차의 최초 협상안에 포함돼 있다가 지역노동계의 반발로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지역노동계로부터 포괄적인 협상 위임을 받은 광주시는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현대차가 이

규정의 삽입을 요구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제1안으로 제1조 2항의 전체를 삭제하거나 조항 중 35만대를 삭제한 뒤 제2안으로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또는 제3안으로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고 수정해줄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같은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결의 사항을 현대차에 즉시 알리고, 5일 밤부터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만드는 신설법인이 경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며 “투자유치추진단의 포괄적인 위임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위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결의 사항만큼 이를 현대차에 전하고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일 밤이나 6일 오전까지 현대차가 이를 수용해 6일(오늘) 오후로 예정된 투자협약식이 예정대로 치러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임금협상 유예 조건 이외에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원하청 개선, 노사책임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만큼 현대차가 대승적으로 이를 수용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현대차는 (임금협상 유예조항은)이사회 결의 사항인데다 신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발표문을 내고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 입지 내년 1월 선정

범정부지원위 출범 ... 복수 후보지 서면·현장 실사

정부와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전공대 입지선정 작업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5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 회의를 열었다.

균형위는 설립지원위원회 첫 회의인 이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한전공대 설립추진계획,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선정 추진절차 등을 논의했다. 설립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총리실 및 관계 부처 차관급,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한전 사장 등이 참여한다.

지역 관심도가 높은 입지선정과 관련

해 한전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입지선정 관련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구성·기준·심사 등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입지선정은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면 기준위원회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서면·현장 실사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한전공대 설립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한전공대 설립과정의 집행과 관련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도 설립지원위원회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한전 공대를 유지를 놓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를 설립지원위원회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조국 수석 거취 변동 없다”

문대통령 정면돌파 의지

특감반 개선 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대해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 저녁 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작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

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사관들의 일탈 행동이며, 조 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여권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 수석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야권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윤창현 전 광주시장 인터뷰

“바보 같은 행동 ... 모든 게 미안” ▶6면

KIA 타이거즈 마형 이범호

부상없이 활약 박수받고 떠나고파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관하는 2018년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모집

1. 모집업체

30개소(이내)

2. 신청자격

- 2017년, 2018년 친환경기술이전교육을 수료하고 양식을 창업한 자(업체)
- 바이오플라 방법으로 새우 등을 양식하고 있는 자(업체)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대상업체 선정 : 2018.12. 17 ~ 21(개별통지)

4.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모니터링 대상 업체선정 및 모니터링 횟수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개별 통지
- 모니터링 횟수는 총 4회(이내)이며 지원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6. 일정 및 방법

- 일정 : 2018. 12. ~ 2019. 3.
- 방법 : 매월 1회 전문가 업체 방문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1. 모집분야

5개분야/ 250명

- 양식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 생산기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 시설 컨설팅 지원
- 행정 서비스 지원(인·허가사항)
- 수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 최대 4회 신청 가능/중복신청 제한

2. 신청자격

- 예비양식창업자 및 창업희망자
-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 2018년 친환경양식기술이전교육 수료자 등

3.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교육생선발 : 2018.12. 17 ~ 21 (개별통지)

4. 제출서류 및 선발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제출한 지원서를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 개별 통지

5. 컨설팅 품종

- 품종 :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전복, 해조류, 능성어, 해삼, 남치, 갯벌참굴, 참다랑어

6. 컨설팅 지원 방법 및 장소/일정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분야별 컨설턴트를 지정 신청하면 1:1 맞춤형 컨설팅지원
- 1인 최대 4개 분야(4회) 신청 가능
- 컨설턴트 별 1회 이상 중복 신청 불가
- 컨설팅 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컨설팅 일정 : 2018. 12. 24~ 2019. 2. 28